

대구BBS 제1회 신행일기 공모 대상작

신행담



장애를 화두삼아

불 법과 나는 어떤 인연일까?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나 '까까머리 중놈 아들'이란 놀림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난 나는 불교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6남매를 둔 아버지께 대한 열망과 반항심이 깊어만 갔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불교를 무작정 싫어하며 부정하던 어느날 난 실명(失明)이란 엄청난 충격에 부딪치게 되었다. 맹아학교에 가기 전까지 나의 하루 하루는 어두운 방 안에서 꿈꾸고 앉고 싶외에 빠져 살았다. 한 줄기 햇살조차 내 방안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그때 달린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 평생시 신도들에게 법담을 해주실 때 재미있어 귀담으셨던 돌던 법담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게 해주셨다.

아버지는 내게 여러 선사들의 일화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합선을 하라고 권하셨다. 합선을 통해 혜안이 트이면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간절한 음성이란 걸 몰랐다. 당시 무명과 좌절 속에 있던 내게 그런 말이 들려올 리 없었고 오히려 반항심으로 타종교 방송을 크게 틀어 놓기도 하고 타종교를 믿어 보려고도 했다.

그런데 종교란 것이 단순히 믿어지지 않고 마음먹는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좌절의 시간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불교방송 개국 소식이 들렸다. 당시 난 서울에 살았기에 일찍이 불교 방송을 접할 수 있었는데 '석가모니의 생애'라는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의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로 논뜨게 한 프로그램이었다. 왕이라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저버리고 고행의 수도생활을 선택한, 한 인간의 절실하고도 진지한 삶과 가르침은 차라리 눈물겨운 감동이었다. 그리고 삶의 가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의 실현에 의해 얻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후 '고승열전'을 통해 효종 선사의 녹각이 고행, 대동명 앞에서도 당고려했던 단풍 선사의 일갈, 한암 스님의 고고하면서도 거룩한 법력은 나의 신앙을 더욱 구제화하였다.

대학에 들어가 컴퓨터를 배웠고 음성 합성기에 의해 모니터된 되는 컴퓨터 덕분에 화면을 쳐다보는 대신 소리

화가 나가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때면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염송을 하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를 들어가며 내 서툰 타이핑 실력은 점차 속도를 올려 나갔고 컴퓨터 통신도 가능하게 되었다. 통신 생활은 내 삶을 중요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 동호회 활동을 통한 불교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특히 경전이 거의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점차로 읽기가 어려운데다가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개인이나 카탈로그를 신앙하고 있는 터라 점차 도서나 녹음 도서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통신인들에 의해 제작된 불교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한글 경전이나 스님들의 설법 관련 자료

들이 그때마다 위의 방편을 응용하여 그들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염송하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계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보인다는 걸 적당히 이용하여 나를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 대해 호의를 갖는 척하며 접근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하다가 피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부처님이라 염송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 기만 같아서 잘 안되었으나 최근에는 화가 나가거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무조건 상대방을 부처님이라 믿고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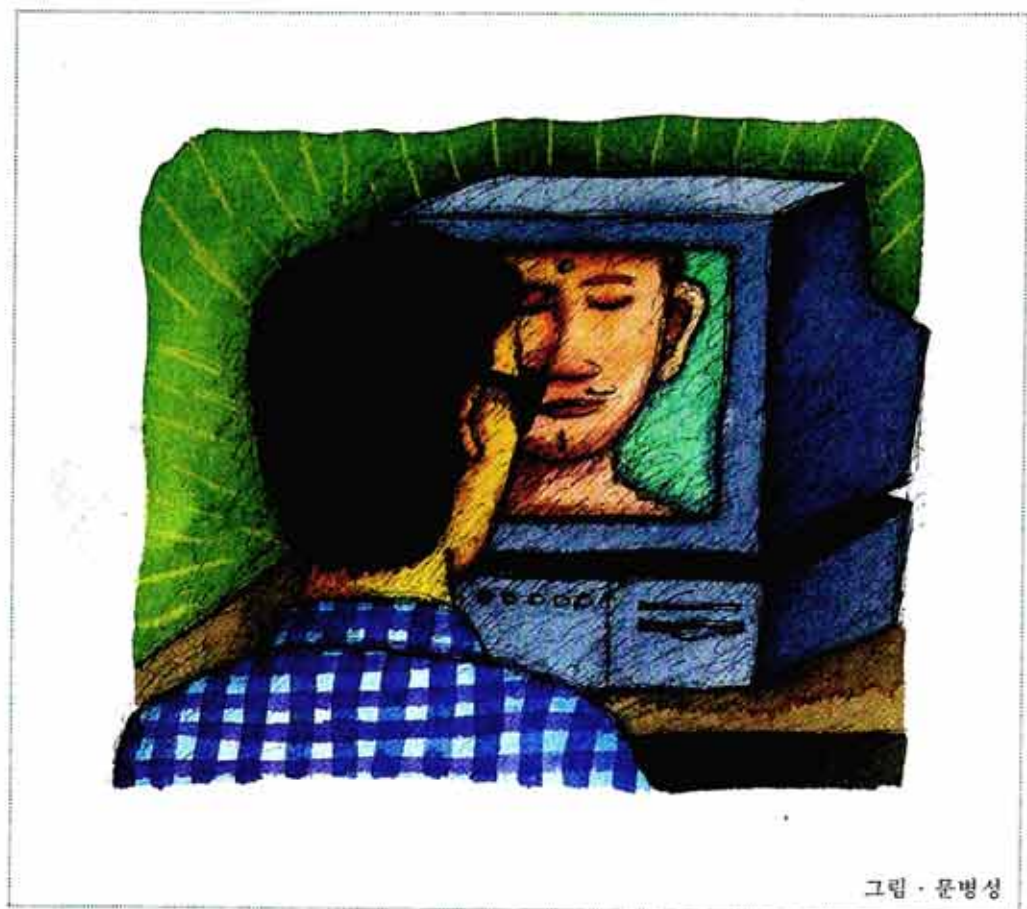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렇게 가슴 뛰고 밝아지는 세상인데 나 자신이 불도를 닦아 남들을 돕는다 면 그것만한 보수와 공덕이 또 있을까

라니시를 비롯해 많은 활동을 보인 다 자그라하, 임철하신 쿠시나가라까지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아 약혼녀와 함께

넴으로 해야한다면 '장애'라고 하는 화두는 내 삶을 끈두박칼치게 하는 독설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한 생각 돌려보면 이것 또한 내게 '인욕 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며, 불경 속의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열심히 살수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된다면 이것만한 마음의 보수가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말을 가끔씩 절감하는데, '장애'란 현실은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부처님 도리는 큰 공부에 있어서는 참선이나 기도 등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경전을 읽는 것이 애로 사항이었으나 앞에 소개한 바쳐된 컴퓨터를 통해 어지간한 경전과 설법은 다 접할 수 있으므로 별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세상 전체가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경전인데 그걸 볼 줄 모르는 내 하근기가 문제이지 무엇을 탓하랴. 순간 순간에 진리의 길을 걷고 나 자신을 확인한다면 이것만한 공부 더 있을꺼? 디오게네스의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며 참된 진리를 찾았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참된 길을 걸어 한소식을 하고 마음내 큰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강시열(대구시 서구 중리동)

삶의 가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아 장애를 인욕바라밀 실천기회로 삼아

는 내 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고마운 계기였다. 나는 자랑할 만한 수행자는 못되어도 나름대로 참선과 석가모니불 염송을 해오고 있다. 석가모니불 염송은 시작만 지 낙담 정도였다. 또 지금은 대학 전공을 살려 학교에서 3년째 교편을 잡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그 나름의 고충과 갈등은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이 차를 개선되어 가고 있다. 어느 책에다가 읽은 내용인데 싸움이 심한 부부에게 스님이 관한 방법으로 스님을 찾아 온 부인에게 무조건 남편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모신다 권유를 들은 아내가 그걸 실천하면서 변해 가는 자신의 상황들을 소개한 내용이었다. 이에 감동하여 나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가 나가나 섭섭한 마

란 저 자신의 마음을 잠시의 혼란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고마움의 염송을 되뇌이곤 한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수행인 듯도 싶었지만 하루 이틀을 거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이 길 위에 새겨진 부처님의 발자취가 그 열매이며, 이 대가 중에 흩어진 부처님의 숨결이 그 열매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내 주위가 축복감으로 밝아오고 마였던 사람들도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열매만 하면 사람들이 차츰 이해도 가고 고맙기도 한 것이다. 내가 아직 무명속에 헤매면서 억지로 믿어 이 정도까지 진정으로 그들의 참된 성품을 알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감격스러운 환희가 될까?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부처님이란 말만 새겨도

도 있다. **평** 일은 곧잘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나는 주말은 주말 나름대로 시간이 썩는다. 나와 미래를 약속한 여인과 더불어 대구, 경북 근교의 사찰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연사에서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하였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은해사에 가서 108배를 드리며 자신들을 다스리고는 한다. 이외에도 파계사나 송림사도 가끔 둘러 앉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 약속의 장소로 부처님 도량만큼 확실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을 터이다. 부처님 전에 정성껏 절을 하고 일어나면 그렇게 중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유명 사찰은 물론 인도의 룸비니에서 시작하여 싯달타데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보드가야, 초전법륜을 펼치신 바

여명을 하고픈 것이 내 작은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화두나 공안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무'자 화두나 '이렇듯' 일겠다. 그러나 내게는 내 삶의 화두가 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것도 아니고 실천적인 상황만을 지닌 방편만도 아닌, 내가 처한 장애라고 하는 생생한 삶이 있는 화두이다. 난 어릴 가나 이유도 없이 동성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허덕이는 중생들을 보면서, 단순한 가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중생들을 오려려 내가 동정하고 안스러이 여긴다. 물론 '장애'란 것이 살아가는데 있어 그렇게 유쾌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는 자'라 하였던가? 더하니 못하니 하는 분별의 개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물 부다피아 선정 상품 특선



참선명상방석

국내 최초 인체공학학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행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정시간 갖어드 최후의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석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 크기 39x43cm
• 가격: ₩27,000

건강한방옥배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 과음한 입후,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안착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특수습거나 피곤한 분

• 잠을 지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어귀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

• 많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쾌감을 하고 싶은 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 목을 땀 흘리며 사들리는 잠수습생

• 목이 땀에 여러번 실대하고 인건한 해갈책을 찾지못한 고심하신 분

• 가격: ₩30,000(1개) / ₩56,000(1세트)

사이버 선택대량 신종

원형 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와 완벽한 조화

메탈레드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메탈레드 축소모형에 넣어 재차 증폭 치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온전한 메탈레드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메탈레드(봉황)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최대높이 30cm
최대크기 15cm x 15cm
중 5cm x 11cm
가격: 143,000

■ 사이버 메탈레드(주석)

재질: 주석
종류: 개금, 골동
규격: 중 17cm x 12cm
가격: 200,000

■ 사이버 메탈레드(나무사리)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최대높이 26cm
중 5cm x 11cm
가격: 143,000

정보만든 스승의 그릇 밭음

밭음은 스님들이 항상 지니어 할 도구의 하나로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밭음은 밭다리 (鉢多羅-pasa)인데 지르니 색칠, 양은 규정된 밭에 따라야 하며 밭에 양은 그릇(鉢)이라 부른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밭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밭(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저술은 해인사 불탑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저지한 와발우(瓦鉢)이다

■ 와발우(4합) - 가격 60,000원 무게 2.7kg
■ 와발우(2합) - 가격 30,000원 무게 1.4kg
(이상은 제가 불거버린 경우입니다)

경상

사람의 감정을 쓰는 경상을 오름에 맞게 상용화 했습니다. 경상공부하는 마음으로 몇 진법을 익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람의 감정이 오시면 이 악기 불거버린 감성 생활공간을 꾸리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선에게 감정을 공부하는 부모들이 오름을 보여주는 것은 그 저서로 저자(저술)였습니다. 가정에서 신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 크기: 가로 720x세로 340x깊이 100mm(정확도 100mm)

■ 재질: 노후나무

■ 가격: ₩85,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VIDEO 테일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민중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를 보고 성스러운 신,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성한 장소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미술품과 석불 조각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물형태 등 뛰어난 유물들이 불국사로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한불교진흥원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상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45분/부처-40분
반어음선-30분

■ 가격: ₩13,000

달마도 손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백현 원종우 선생의 그림을 손금판(99.9%) 위에서 그려낸 개인 소장 액자입니다. 선물용으로 최상의 작품입니다. 유서물로는 다음입니다(골의 재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27cm x 33cm
손금판 크기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86 호

■ 가격: ₩120,000